

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지방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최 홍 봉** · 윤 성 민***

요약 : 이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벤처기업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서는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업종이나 첨단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에 비해 지방에는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수도권 벤처기업의 네트워크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기술협력 활동이 활발하고 마케팅 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관심이 많은 반면, 지방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학과의 기술협력활동이 활발하고 기술개발활동에 전략적 제휴의 목표가 주어져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능력이 지방의 벤처기업들 보다 더 뛰어났으며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벤처기업, 기업입지, 수도권 집중화, 기술협력 네트워크

1. 서 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 인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연구 개발 기능에 있어서도 연구인력, 연구 개발기관, 그리고 연구개발비 모두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이러한 환경은, 주로 첨단 산

업에 속해 있는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입지로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의 주요 입지요건으로는 1) 연구개발시설에의 접근, 2)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 3) 모험자본 등 풍부한 금융자원, 4) 관련 산업의 집적, 5) 고속 교통 및 정보체계, 6) 도시기능의 집적, 7) 쾌적한 거주 및 작업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거의 모든 조건에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 이 논문은 2001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에 위치한 벤처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벤처기업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제적 자원-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경제적 폐해와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 왔다(박경, 2001; 성경룡, 2001; 초의수, 2000).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수도권의 경제적 자원과 지방의 경제적 자원-이들테면 벤처기업-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일 양 지역의 경제적 자원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낼 수 있다면 정부의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 지역간에 벤처기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분석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수도권과 지방에 존재하는 벤처기업들 사이에, 첫째 산업적 특성으로서 업종구성이나 첨단산업 비중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둘째 네트워크적 특성으로서 기술협력대상이나 전략적 제휴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 셋째 기업 내부적 특성으로서 기술개발능력이나 경영성과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업의 입지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될 연구가설을 세운다. 제 3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벤처기업들 사이에 산업적 특성, 네트워크적 특성, 그리고 기업 내부적 특성에 있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실증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얻어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검토

1) 기존 연구의 검토

(1) 전통적 입지이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종류의 기업들이 입지하는가 하는 기업입지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은 이론적, 실증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이론들이 도출되었다.

기업 입지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최소비용이론, 최대수요이론, 비용과 수요의 통합이론, 중심지 이론 등이 있다(박삼욱, 1999).

최소비용이론은 기업입지를 결정짓는 주요요소를 총운송비로 보고 이를 원료운송비와 완제품운송비로 나누어 원료운송비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원료 생산지 주변에, 완제품 운송비가 큰 기업은 시장 지역인 도시에 주로 입지한다는 것이다. 최대수요이론은 운송비 중심의 최소비용의 관점을 부정하고 수요를 최대화 하는 지점이 최대이윤을 주는 최적입지라고 보았다. 즉 공간상에서 수요를 고려하게 된다면 운송비 관점의 최소비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수요를 최대화하기 위한 시장지역의 분석이 입지이론의 핵심이 되었다.

비용과 수요의 통합이론은 운송비 중심의 최소비용이론과 시장 중심의 최대수요 이론을 통합한 것으로서 기업의 입지는 비용의 최소화과 이윤의 최대화를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비용은 운송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총비용으로 대체시키고 수요인자를 기

본 모형에 통합시켜 비용과 수요를 이론적으로 통합하였다.

중심지 이론은,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생산과정에서 원료가 중요시되는 제조업에서의 기업입지론과는 달리, 원료의 운송비가 거의 무시되는 서비스 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통비용이 문제가 됨으로써 총유통비를 최소화하는 지점에 서비스 산업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제조업 중에서도 원재료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중심지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조직 연구의 구조적 접근

1970년대 들어와 지금까지의 기업입지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현대사회의 기업입지를 연구하는 두 가지 이론적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기업조직연구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강현수, 1989).

이들 이론들은, 전통적인 기업입지 이론이 소규모기업, 균형, 완전경쟁시장 등 신고전파적,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기업조직의 측면을 중시하는 기업조직연구는, 현대의 기업조직은 상호의존의 복잡한 체제 안에서 활동하면서 구조의 복잡성이 증대하며 기업성장의 초기에는 핵심지역에 공업투자가 집중되는데 비해 점차 기업이 커져감에 따라 성장 후기에는 다지역, 다국적기업으로 변해 주변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Hakanson, 1979).

구조적 접근에서는 기업의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법칙인 이윤을 저하 경향 속에서 각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이윤

과 자본축적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게 된다. 이 때 노동이나 기타 제 비용에서의 지역과 지역사이의 차이는 기업의 이윤획득에서의 차이의 원인이 되며, 기업은 가장 많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를 선택하게 된다(Smith, 1981).

구조적 접근은 현재의 자본주의체제에서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노동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노동력의 비용만을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구조적 접근에서는 노동력의 가격, 통제, 재생산의 요소까지 고려한다(Warker and Storper, 1981).

(3) 벤처기업의 입지이론

벤처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생성되고 성장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산업지구론, 산업클러스터론, 지역혁신 시스템론, 네트워크 이론 등 다양한 논의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의 생성·발전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본 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벤처기업의 입지이론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벤처기업은 첨단산업에 속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기술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의 입지이론과 첨단산업의 입지이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Galbraith(1985)는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전문기술 인력의 활용 용이성, 그 지역의 생활환경, 최고경영자의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욕망을 들고 있다. Noble and Galbraith(1992)는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첨단기술을 가진 전자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격, 마케팅, R&D 등 전반적인 경쟁력

에 기여하는 전략적 요인들이 기업의 입지선정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Littunen(2000)은 기업의 출발시점에서 어떠한 네트워크가 신생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신생기업의 성공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서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신생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uart and Sorenson(2003)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같은 분야의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집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들에게 필수적인 자원들(고급기술인력, 벤처캐피탈 등)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벤처기업의 입지이론으로 국내에서의 연구로는 권오혁(1999), 박종화·황우익(2002) 등을 들 수 있다. 권오혁(1999)은 '벤처기업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생산연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요망한다'고 말하고 특정분야의 전문 업체들이 다수 집적화 된 전문적 산업지구를 지향하고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집적지는 전문벤처기업들이 창업·성장하는 토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첨단기술에 토대를 둔 소규모 전문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은 ① 대도시 내나 그 인근지역에 ② 다양한 도시적 활동의 지원이 용이한 위치에 ③ 가능한 기초투자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④ 동종산업분야나 관련활동 들이 공간적으로 입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박종화·황우익(2002)은 벤처기업의 입지이론으로 대도시 지향성과 집적 지향성을 강조한다. 대도시 지향성이란 첨단 산업일수록 비공식정보 취득가능성의 증대, 법률이나 금융 등 고급 서비

스에의 접근성 제고, 고급 숙련인력 획득의 용이성, 그리고 관련 기업·연구소·대학과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등으로 대도시 지향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창업기업에게는 시장 근접성, 긴밀한 하청망, 관련자들과의 빈번한 대면 접촉성, 관련 산업의 밀집, 풍부한 노동력의 존재, 시장 정보의 신속한 취득 등이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집적 지향성이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과 전문화 확보과정에서 기업간 상호작용(네트워크 또는 공급자 체인), 서로 다른 자원이나 기능의 결합, 제도적 연계, 그리고 공간적 근접성 등 때문에 특정지역에 집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처럼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들 연구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강병수, 2000; 김영표, 2001; 박삼욱, 2001), 지역 벤처기업의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임동진, 2001; 운영삼·서재홍, 2002), 서울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관한 연구(최지훈, 2000; 전외술·곽병환, 2002), 그리고 부산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윤대혁, 2002; 운영삼·서재홍, 2002; 김정수·윤혁권, 2003) 등이 있다.

이상에서 기업의 입지이론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물론 기업의 입지이론은 위에서 열거한 주요이론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예를 들면 기술의 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입지이론으로 버논(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 콘트라체프(Kontratief)의 장기파동이론, 헤이터(Hayter)의 유연생산이론 등이 있으며 또한 최근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클러스터론이나 신산업

지구론 등도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벤처기업의 입지이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는데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앞의 논의에서 기업조직 연구와 구조적 접근 방법은 전통적 입지이론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그 근거로서 전통적 입지이론이 소규모 기업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전체 경제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최근의 경제구조에서는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이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조직 연구나 구조적 접근 방법이 현실의 경제흐름을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더 유용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규모가 작고 완전 경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입지론이나 구조적 접근 방법과 함께 전통적 입지이론도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기업의 입지이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이 그 기업의 산업적, 네트워크적, 기업 내부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지역적 특성이란 그 기업이 어떠한 지역 또는 어떠한 성격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를 의미하고, 산업적 특성이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은 어떠한 업종이며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말한다. 또한 네트워크적 특성이란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주체들이 누구인가? 또는 네트워크의 성격은 무엇인가? 를 의미하며 기업 내부적 특성이란 기업 그 자체가 갖는 속성 - 이를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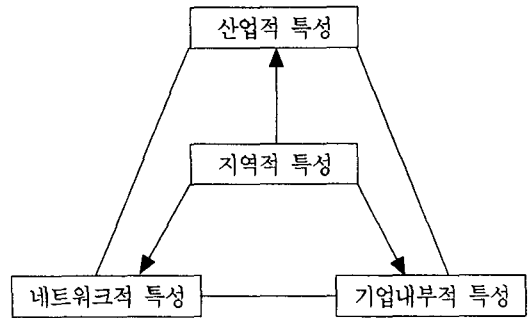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면 기업의 규모, 경영성과, 조직의 형태, 경영형태, 연구개발 능력 - 등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연구모형의 변수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업적 특성과 기업 내부적 특성, 네트워크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 네트워크적 특성과 기업 내부적 특성 사이에는 상호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간의 상호 관계 중에서 특히 지역적 특성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 즉, 그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는가, 지방에 위치하는가 하는 변수가 산업적 특성이나 네트워크적 특성, 또는 기업 내부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의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

벤처기업의 입지이론의 논의에서 벤처기업들이 강한 집적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권오혁(1999)은 벤처기업이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벤처기업 설립의 주요조건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정의 외부화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관련 산업 활동들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종화·황우익(2002)도 관련기업들 간에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혁신적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관련기업들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서울의 지역내 생산 비중을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11.4%인데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88.2%에 달해 여타지역에 비해 서비스의 비중의 월등히 높으며 반대로 지방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2003).

결국 벤처기업의 집적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에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1 :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박종화·황우익(2002)은 벤처기업의 입지 이

론에서 벤처기업의 대도시 지향성을 강조하면서 첨단 산업일수록 비공식 정보 취득 가능성의 증대, 법률이나 금융 등 고급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고급숙련인력 획득의 용이성, 그리고 관련 기업-연구소-대학과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개발자원 -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 등을 고려할 때(표 2 참조) 지방보다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벤처기업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 이를 가설로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 1-2 : 첨단업종의 비중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2) 지역적 특성과 네트워크적 특성

최근 네트워크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는 기업

표 1.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발전 단계

단계	목표	협력의 유형		참여기업
경쟁이전	연구개발협력	A	기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연구 (공공자금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다수
		B	정부-산업간 연구개발협력에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참여	
		C	민간기업간 합작투자에 의한 연구개발기업	소수
경쟁단계	기술협력	D	소규모 첨단기술기업들에 대한 벤처자본투자 (개별기업이 단독 투자하거나 복수의 기업들이 투자 참여)	소수 또는 극소수
		E	특정분야에서의 기업간 비지분 연구개발협력협약	
		F	완성된 기술에 관한 기업간 기술협약: 기술공유협약, 복제생산허용협약, 복합적 상호라이선스제공협약, 특정제품시장에서의 상호라이선스제공협약	
	제조 또는 마케팅	G	합작기업 혹은 포괄적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컨소시엄	
		H	고객-공급자, 생산자-사용자 협약, 제휴	
		I	라이선스제공협약 내지 마케팅협약 (OEM 판매협약 포함)	

간, 기업·정부기구간, 기업과 대학 사이에, 그리고 산·학·연 등 네트워크 행위자의 성격에 기초한 네트워크 유형의 구분이다. 둘째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행위자간 관계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다. 셋째로 기술협력의 단계와 목표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Freeman, 1991).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들이 기술협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협력의 단계와 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려고 한다. 수도권에 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제적 자원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협력의 단계와 목표도 지방의 벤처기업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Chesnais(1988)는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단계와 목표에 따라 기술협력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표 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A → I로 내려갈수록 보다 발전된 단계의 기술협력 형태를 의미하는데 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형태보다는 기업과 기업과의 기술협력형태가 더 발전된 형태를 나타내고 기술협력보다는 마케팅협력이 보다 진전된 협력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만일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과 지방의 벤처기업 사이에 네트워크 발전 단계가 다르다면 기술협력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에 있어 기술협력 활동의 협력대상에 차이가 있다.

가설 2-2 :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에 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 계획에 차이가 있다.

(3) 지역적 특성과 기업 내부적 특성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적 특성으로는 업종,

표 2.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개발능력 비교

(단위 : %)

연구개발능력	수도권	지방
연구인력	58.6	41.4
연구개발기관	66.7	33.3
연구개발비	62.7	37.3

자료 :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2003)

기업규모, 경영형태, 기술개발력, 경영성과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능력과 일반적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영지표인 경영성과 변수를 선택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 지역을 비교하고자 한다.

표 2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능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수도권에서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라는 집중된 지역을 의미하지만 지방이란 전 국토에 연구개발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 지방에서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제여건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의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능력에 있어 보다 더 뛰어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3-1 : 수도권의 벤처기업이 기술개발능력에 있어 보다 더 뛰어나다.

수도권과 지방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비교에서는 수도권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나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의 가설에서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면(가설 1-2), 그리고 수도권의 벤처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이 지방보다 더 뛰어나다면(가설 3-1) 그 경영성과도

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연관시켜 분석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활발한 기술개발 활동은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영배·하성욱, 2003).

기술개발 활동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일반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Audretsch, 1995 : Dom and Dunne and Roberts, 1995 : Liu and Tsou and Hammitt, 1999).

또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도 많은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병기, 2002 : 박종훈·윤채린, 2003 : 원종하·이도화, 2001).

가설 3-2 : 수도권에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지방에 비해 더 좋다.

3. 실증분석

1) 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이 2002년 9월 발표한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원자료(raw data)이다. 이 자료는 2002.4.1 - 2002.7.31 기간 중 '경영실태조사서 온라인(벤처넷)'에 자료를 입력한 총 6,928개 벤처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로 얻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한 6,928개 벤처기업 중 기본정보 등 중요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905개를 제외한 6,023개사를 유효표본으로 설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선택된 6,023개의 벤처기업 중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하는 기업은 4,689개(77.9%)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은 1,334개(22.1%)이다.

그렇지만 재무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즉 1) 해당 자료에 응답이 전혀 없는 기업은 제외 2) (자기자본+부채)와 자산의 차이가 30%를 벗어나는 기업은 제외 3) 2000년, 2001년 경상이익, 매출액이 모두 기업된 기업만 선택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실증분석의 내용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벤처기업 두 집단 사이에서 몇 가지 특성치의 분포가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한지에 대한 가설검정의 경우에는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의 경우에는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제 통계처리에 이용한 프로그램은 SAS ver 8.1의 PROC TTEST 및 PROC FREQ 이다.

2) 실증분석 결과

가설 1-1 및 가설 1-2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벤처기업의 서비스 업종이 산업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33.2% 대 11.8%, 기타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7.9% 대 4.0%로 큰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지방의 15.8%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벤처기업의 입지이론에서 집적지향성으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서비스 업종의 벤처기업이 집적된다고 할 수 있

표 3.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 : 개, %)

업종	전국	수도권	지방
첨단제조업	2,192 (36.4)	1,749 (37.3)	443 (33.2)
일반제조업	1,487 (24.7)	882 (18.8)	605 (45.4)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업	1,715 (28.5)	1,558 (33.2)	157 (11.8)
기타서비스업	425 (7.1)	372 (7.9)	53 (4.0)
농·수·임·어업	16 (0.3)	6 (0.1)	10 (0.8)
기타산업	188 (3.1)	122 (2.6)	66 (5.0)
표본 수	6,023 (100.0)	4,689 (100.0)	1,334 (100.0)
χ^2 -값	-	525.56	
가설검정결과	-	○***	

- 주 : 1) 첨단제조업(바이오, 환경, 에너지, 반도체장비 및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컴퓨터 및 주변기기, 의료기계, 정밀기계, 광학기계, 첨단소재 업종), 일반제조업(일반기계, 전자기기, 수송기계, 금속·비금속, 음·식료, 섬유, 화학 업종), 소프트웨어·정보통신서비스업(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엔터테인먼트, 광고 및 기타 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 솔루션·컨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업종), 기타 서비스업(연구개발 관련 서비스, 문화·관광, 도·소매·수리업, 기타서비스 업종), 농업, 수산업, 임업, 어업, 기타산업(광업, 건설업 등)
- 2) ○ 표시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 표시는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함. 이하 다른 표에서도 마찬가지임
- 3) ***는 두 집단(수도권·비수도권 벤처기업)의 구성비율 분포 차이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는 유의수준 5%, *는 10%). 이하 다른 표에서도 마찬가지임

다. 따라서 권오혁(1999)과 박종화·황우익(2002)의 주장은 지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첨단업종의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서비스업에서 33.2% : 11.8%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일반 제조업의 경우 지방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에(45.4% : 18.8%), 첨단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첨단 산업의 대도시 지향성을 주장한 박종화·황우익(2002)의 주장도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표 3과 같이 가설 1-1과 가설 1-2는 모두 1% 유의수준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1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수도권, 지방 모두 기술협력활동의 협력대상에 있어 대학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상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대학의 기술협력 활동을 갖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66.1% : 45.8%로 지방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간기업과 기술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36.0% : 26.9%로 수도권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협력 활동의 발전단계에 있어 기업과 대학과의 협력활동보다는 기업과 기업간의 기술협력활동이 보다 진전된 형태라고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에 있어 기

표 4. 기술협력활동의 협력대상

협력대상	전국	수도권	지방
대학	1,617 (26.9)	1,113 (23.7)	504 (37.8)
정부연구기관	350 (5.8)	268 (5.7)	82 (6.2)
민간기업	1,022 (17.0)	899 (19.2)	123 (9.2)
대학·정부연구기관	508 (8.4)	338 (7.2)	170 (12.7)
대학·민간기업	559 (9.3)	449 (9.6)	110 (8.3)
정부연구기관·민간기업	119 (2.0)	91 (1.9)	28 (2.1)
대학·정부연구기관·민간기업	343 (5.7)	246 (5.3)	97 (7.3)
기술협력활동 없음	1,505 (25.0)	1,285 (27.4)	220 (16.5)
표본수	6,023 (100.0)	4,689 (100.0)	1,334 (100.0)
χ^2 - 값	-	234.07	
가설검정결과	-	○***	

술협력활동의 협력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1은 표 4와 같이 1% 유의수준에서 지지되고 있다.

가설 2-2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앞의 표 3에서 수도권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지방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것을 반영하여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계획에서도 수도권에서는 공동마케팅 추진이 47.1%,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제휴가 3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제휴가 4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동 마케팅 추진 34.1%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에 있어 기업간 전략적 제휴계획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2는 표 5와 같이 1% 유의수준에서 지지되고 있다.

가설 3-1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향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은 개별기술자의 기술개발활동 →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신설 →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44.2%, 연구개발전담부서 비

중이 21.5%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중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두 비중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능력에 있어 보다 뛰어나다는 가설 3-1은 표 6과 같이 1% 유의수준에서 지지되고 있다.

가설 3-2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경영성과를 내포하는 성장성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5.0%인데 대해 지방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8.7%로 수도권 벤처기업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수익성에서는 오히려 지방의 벤처기업이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김영배·하성욱(2003)이 제기한 것처럼 활발한 기술개발활동은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지방에 비해 더 좋다는 가설 3-2는 표 7과 같이 10% 유의수준에서 지지되고 있다.

표 5.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계획

제휴계획	전국	수도권	지방
상호주식교환	31 (0.7)제	23 (0.7)	8 (0.9)
공동기술개발	738 (17.2)	553 (16.2)	185 (20.9)
기술제휴	720 (16.7)	548 (16.0)	172 (19.4)
공동생산	204 (4.7)	145 (4.2)	59 (6.7)
공동브랜드개발	127 (3.0)	93 (2.7)	34 (3.8)
공동마케팅추진	1,912 (44.4)	1,610 (47.1)	302 (34.1)
합작투자	418 (9.7)	332 (9.7)	86 (9.7)
기타	154 (3.6)	115 (3.4)	39 (4.4)
표본수	4,304 (100.0)	3,419 (100.0)	885 (100.0)
χ^2 -값	-	55.04	
가설검정결과	-	○***	

표 6. 기업내 기술개발 연구조직

연구조직	전국	수도권	지방
기업부설연구소	2,524 (41.9)	2,073 (44.2)	451 (33.8)
연구개발전담부서	1,420 (23.6)	1,008 (21.5)	412 (30.9)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 보유	505 (8.4)	428 (9.1)	77 (5.8)
기술개발연구조직 없음	1,574 (26.1)	1,180 (25.2)	394 (29.5)
표본수	6,023 (100.0)	4,689 (100.0)	1,334 (100.0)
χ^2 -값	-	87.17	
가설검정결과	-	○***	

표 7. 벤처기업의 내부적 특성 비교

	전국	수도권	지방	t-값
매출액 증가율 (%)	32.0	35.0	18.7	1.69*
매출액경상이익률 (%)	3.73	3.18	6.50	-0.20
종업원 수 (명)	35.8	35.5	37.1	-0.67
매출액 (백만원)	4,943.6	5,036.9	4,519.6	0.94
표본 수 (개)	2,916	2,390	526	-

주 : *는 두 집단(수도권-비수도권 벤처기업)의 평균값 차이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결 론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

제적 자원들 -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연구소 - 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경제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즉 주택문제, 교육

문제, 공해문제 등과 함께 지역 불균등 발전과 지방소외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제적 역기능과 함께 우수한 연구인력과 풍부한 정보, 다양한 수요처 등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여건의 차이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각각의 경제 환경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들에 있어 그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나 그에 따른 상이한 행동패턴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기업들의 업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는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업종이나 첨단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에 비해 지방에는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수도권 벤처기업의 네트워크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기술협력 활동이 활발하고 마케팅 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관심이 많은 반면 지방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학과의 기술협력활동이 활발하고 기술개발활동에 전략적 제휴의 목표가 주어져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 능력이 지방의 벤처기업들 보다 더 뛰어났으며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부터 표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

업 분야의 기술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과 비교해서 기술개발능력 면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방 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있어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기술협력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셋째,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간 공동마케팅 제휴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수, 200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특성과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pp.149-168.
- 강현수, 1989, "기업조직변화와 노동의 공간적 분업 - 지역격차의 발생과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2, 2001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 권오혁, 1999, "벤처기업의 입지성향 분석", 국토계획, 34(6), pp.187-202.
- 김영배·하성욱, 2003, "중소기업의 기술학습과 기업 성과", 2003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한국중소기업학회, pp.19-34.
- 김영표, 2001, "경남의 벤처기업현황과 육성방안", 2001년 정기총회 춘계학술발표회, 한국중소기업학회, pp.120-154.
- 김정수·윤혁권, 2003, "조직특성이 시장지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 지역의 벤

- 처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논집 17(1), pp.119-142.
- 박 경, 200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 지방분권화와 주민자치, 민주공원 부 민주주의 사회연구소 제 2회 학술심포지움.
- 박삼욱, 1999,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 박삼욱, 2001, “테크노파크 조성과 벤처기업의 육성”, 인터넷비즈니스연구, pp.119-141.
- 박종화·황우익, 2002, “벤처기업의 대도시 및 집적 지향성”, 국토계획 37(1), pp.57-74.
- 박종훈·윤채린, 2003,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서 파트너특성, 제휴유형, 지배구조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 중소기업연구 25(2), pp.279-304.
-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2003, 지역별 경제여건비교 - 경제통계지도의 활용.
- 성경륜,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 원종하·이도화, 2001, “벤처기업 네트워크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4(1), pp.35-62.
- 윤대혁, 2002, “부산·경남지역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현황과 과제”, 벤처경영연구 5(3), pp.131-155.
- 윤영삼·서재홍, 2002, “부산지역의 정보통신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2), pp.137-161.
- 이병기, 2002,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임동진, 200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고용실태와 지원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39(3), pp.87-111.
- 전외술·곽병한, 2002, “서울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6(2), pp.73-93.
- 중소기업청, 2002, 2002년도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 초의수, 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4(1), pp.185-216.
- 최지훈, 2000,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악구 벤처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pp.81-96.
- 최홍봉, 2002, “부산지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상경연구 19(1), pp.1-23.
- 통계청, 2002, 지역통계연보.
- Audretsch, D. B., 1995, “Innovation, Growth and Surv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 pp.441-457.
- Chesnais, F. 1988,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s between Firms”, *STI Review* 4, OECD.
- Doms, M., Dunne, T. and Roberts, M.J., 1995, “The Role of Technology Use in The Survival and Growth of Manufacturing Pl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3, pp.523-542.
- Freeman, C., 1991, “Networks of Innovators: A Synthesis of Research Issues”, *Research Policy* 20, pp.499-514.
- Galbraith, Craig S., 1985, “High-Technology Location and Development: The Case of Orange Coun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8(1), pp.98-109.
- Hakanson, L., 1979, “Towards a Theory of Location and Corporate Growth”, Hamilton, F. E. I. and Linge, G. J. R.(ed).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1, pp.115-138.
- Littunen, H., 2000, “Networks and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the Survival of New Firm”, *Small Business Economics* 15, pp.59-71.
- Liu, J. T., Tsou, M.W. and James, K.H., 1999, “Do small Plants Grow Faster? Evidence from the Taiwan Electronics Industry”, *Economic Letters* 65, pp.121-129.
- Noble, Alex F. De and Galbraith, Craig, S., 1992,

"Competitive Strategy and High Technology Regional/Site Location Decisions: A Cross-Country Study of Mexican and U.S. Electronic Component Firms",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3(1), pp.19-37.

Smith, D. M., 1981, "Industrial Location". *John Wiley & Sons*, pp.108-143.

Stuart, T., and Sorenson, O., 2003, "The Geo-

graphy of Opportunity: Spatial Heterogeneity in Founding Rates and the Performance of Biotechnology Firms", *Research Policy* 32(2), pp.229-253.

Walker, R., and Storper, M., 1981, "Capital and Industrial Loc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5.

교신저자(Correspondence): 최홍봉,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Tel: 051-620-6651, Fax: 051-628-1282, E-mail: hbchoi@pknu.ac.kr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7, No. 1, 2004 (29-43)

An Empirical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Venture Business

Hong-Bong Choi* · Seong-Min Yoon**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bchoi@pknu.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myoon@pknu.ac.kr)

Abstract : In this paper, we try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venture busines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the local area. We set up some hypotheses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venture business and test those using the raw data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survey on the management of venture busines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ventures by region and find that in the metropolitan area high-technology venture business which is belong to software, or information, or communication industries is given much weight. But in the provinces, ventures belong to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is given much weight. Second,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network by region and find that the venture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active in technical cooperation among companies and want strategic tie-ups in marketing field, whereas the ventures in the provinces are active in technical cooperation with university and want strategic tie-ups in technical development field. Third, venture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more excellent in techn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an ventures in the provinces.

Key Words : venture business, location of business, centralization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technical cooperation network